

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2.16)

-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 - * 무역수지(억달러) : ('22.10)△67.2 (11)△70.4 (12)△46.9 ('23.1)△126.9 (2.1~10)△49.7
-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'에너지', '반도체', '중국' 3대 요인에 대부분(95%) 기인합니다.
 - * '23.1월 무역적자(△126.9억달러)의 94.9%는 에너지 수입(54.9%), 반도체 경기(19.8%), 중국 요인(반도체 제외, 20.3%)이 기여
- 에너지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·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,
-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%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,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- 주요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,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습니다.
- 우선,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, 시장 다변화, 서비스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-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*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
- *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, 임시투자세액공제 '23년 한시 도입

-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합니다.
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,
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[① 농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, ② 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]

□ 다음은 농식품·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.

□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의 경우
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습니다.

* 농식품 수출(억달러, 전년대비) : ('20) 75.6 → ('21) 85.6(+13.2%) → ('22) 88.3(+3.2%)
수산식품 수출(억달러, 전년대비) : ('20) 23.1 → ('21) 28.3(+22.5%) → ('22) 31.6(+11.8%)

- 다만, 농수산식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
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금년 1월에도
전년대비 10% 이상의 감소세*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
* '23.1월 수출 : (농식품) 6억 4000만달러(△11.5%), (수산식품) 2억 1000만달러(△14.7%)

□ 고물가에 따른 식품·외식소비 감소 등으로
향후 수출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는 하지만,

- 정부는 K-팝,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
라면·장류·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
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- 또한,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,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
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고,
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
수출 현장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.

□ 구체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
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

[③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]

□ 다음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,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어,

*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(%) : ('10년) 51.6 → ('15년) 49.9 → ('20년) 47.5
비수도권 취업자 비중(%) : ('10년) 50.3 → ('15년) 50.2 → ('20년) 49.7

○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중인 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 4.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,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.

① 우선,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에 대해 생산·고용 창출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고, 반도체·이차전지, 도심항공교통(UAM)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하여 총 60개로 확대·개편*하겠습니다.

* (현재) 48개 주력산업 → (개편) 41개 주축산업(△7개) + 19개 미래 신산업

② 아울러, 개편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, 사업화, 인력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,

- 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전후방 연관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,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겠습니다.

③ 또한, 지역주력산업의 정의, 선정기준·절차 등을 법제화하고, 지자체와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등 산업 육성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중기부 장관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

(중기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